

홈 > 뉴스 > 기획 > 문화유산재발견

제주의 역사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제주목 관아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데스크승인 2014.04.03 강민성 기자 | kangms@jejunews.com



제주목 관아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제주의 역사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무예시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제주목 관아 경내와 관덕정 광장에서 열린다. 매주 화·목·토요일은 전통무예체험이, 일요일에는 전통무예시연과 국궁, 전통복식체험이 진행된다.

같은 기간 ‘거문고 정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매주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월 1회 공연을 갖는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진행되는 ‘어린이 역사체험교실’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각 학교별 수업 편의에 맞춰 요일을 정할 수 있으며 약 2시간 내외 교육이 이뤄진다.

'어린이 역사유적기행 및 탐라순력도 체험기행'은 9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펼쳐진다. 대상은 도내 초·중학생 희망자 40명 내외이며 제주목관아를 비롯해 제주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식 답사가 진행된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재현 및 전통예술공연'은 관덕정 광장에서 9월부터 10월 중 1회 실시된다.

'명절 민속한마당'은 설 연휴(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와 추석 연휴(9월 7일부터 9일까지)에 운영된다. 이 행사에서는 제기차기와 연날리기 등 전통민속놀이마당과 전통깃발전시회,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놀이마당이 펼쳐진다.

강민성 기자 kangm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